평화재단 제17차 전문가 포럼

#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토대와 성분

2007 11 28(水) 14:00-17:00pm

배재학술지원센타 L층 세미나실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프로그램

평화재단 제17차 전문가포럼

#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토대와 성분

| | | |
|---|---|---|
| 14:00 | 개 회 | |
| 14:05 | 인 사 말 | •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
| 14:10 | 발 표 | • 사회 및 기조발제 |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br>“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② 토대와 성분” |
| | | • 발 표 1 | 김영림 (대외업무담당,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br>“북한의 신분제도” |
| | | • 발 표 2 | 김병욱 (경제업무담당,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br>“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br>–사회정치생활·물질생활의 불평등에 의한 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
| 15:10 | 지정토론 | •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br>•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br>• 김명하 (새터민)<br>• 장영철 (새터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석사과정) |
| 16:10 | 종합토론 | |
| 17:00 | 폐 회 | |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 목차

4 • 인/사/말
법 륜 | 평화재단 이사장

5 • 기/조/발/제/문
김영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11 • 발/표/문/1
김영림 | 대외업무담당,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북한의 신분제도

17 • 발/표/문/2
김병욱 | 경제업무담당,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

31 • 메/모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 인사말

'토대'와 '성분'은 북한사회에서 삶의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은 북한주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북한사회는 원래 모든 주민의 평등을 내걸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교시에는 평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로 변해 왔습니다. 토대와 성분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교도 결정되고, 직장도 결정됩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당원 자격을 심사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나쁘면 원하는 좋은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승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사회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차별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북한동포들의 탈북배경에는 바로 이 토대와 성분의 차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가는 두 번째 주제로 '토대와 성분'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007. 11.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발표문

김영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토대와 성분

Ⅰ. 개념

Ⅱ. 성분의 분류

Ⅲ. 성분조사사업

Ⅳ. 성분에 따른 차별

Ⅴ. 토대와 성분의 역할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토대와 성분

김영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Ⅰ. 개념

□ 토대 : 사람들의 사회계급적 처지에 의하여 규정되는 정치적 성분

- 계급적 토대의 줄임말

□ 성분 : 출신, 사회적 지위, 사상성 등을 고려해 구분한 사회적 신분

- 조선말대사전은 이를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분, 곧 사람들의 사상상(思想上) 구성성분으로서 어떤 계급의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계급의 사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출신과, 직업, 사회생활의 경위에 의해 사회성원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으로 설명

- “사람들의 성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한다”라고 전제하고, 성분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고 설명

▶ “순이가 그러는데 새로 우리 반에 온 철이네 성분(출신성분)이 그렇게 나쁘다면서?”

▶ 혁이는 가정성분(출신성분)이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간부로 승진했다.

## Ⅱ. 성분의 분류

□ 성분은 크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대 계층으로 나누고, 이들 계층을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화

-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출신성분 구분 작업을 실시

□ 1994년 11월 성분에 의한 분류를 공개적으로 언급

-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좌프로인 [김정일혁명역사] 시간을 통해 “광폭정치를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출신성분이 순결하지 않은 복잡한 군중까지 포섭함으로써 당과 주민들 간의 일심단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도(1994.11.5)

- 이 방송에서 북한은 3계층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등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3계층에 어떠한 주민들이 속하는지를 열거하면서 특히 ‘복잡한 군중’을 포섭해야 한다고 밝힘

□ 주민들은 ‘토마토족’, ‘사과족’, ‘포도족’이라는 은어 사용

## Ⅲ. 성분조사사업

□ 목적 :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

- 조사사업 결과에 기초한 차별적인 성분정책은 인민보안성(사회안전부)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주도 아래 실시

□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대략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음

□ 연혁

▶ 중앙당 집중지도사업(1958.12-1960.12) : 불순분자 색출 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 주민재등록사업(1966.4-1967.3) : 100만 노농적위대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사업(직계 3대, 처가와 외가 6촌까지 내사)

▶ 주민료해사업(1972.2-1974) :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파악

▶ 주민증 검열사업(1980.4-1980.12)

▶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료해사업(1980.4-1980.10) : 월북자, 외국귀화인을 13개 계층으로 분류

▶ 북송재일교포 료해사업(1981.1-1981.4)

▶ 주민증 갱신사업(1983.11-1984.3)

## Ⅳ. 성분에 따른 차별

□ 백두산 줄기와 락동강 줄기

- 특권층의 상징

- 백두산 줄기 : 일제시대 김일성과 항일투쟁을 한 항일빨찌산 그룹

- 원가지(본가지)와 곁가지로 구분

- 혁명가유자녀 : 건국 과정이나 6.25 당시 공헌(락동강 줄기)을 세운 자의 가족과 자녀
-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출신

- 신흥특권층 : 외화 보유계층
- 재일교포를 친척으로 둔 자(후지산 줄기), 재미교포나 남한친척을 둔 자(한라산 줄기)

□ 성분에 따른 혜택

-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의료 혜택, 사회 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 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화 적용

## Ⅴ. 토대와 성분의 역할

□ 북한 사회정책의 기준이며, 북한체제 작동원리의 기본을 구성

- '정치적 계층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하는 대안이 상대적으로 빈약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의 괴리를 낳는 근본 원인

- 행정적 배분에 기초한 '정치적 계층화' 유지 및 강화로 인해 불평등 심화

□ 북한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자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

- 체제 유지의 고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요인

□ 탈북 동기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발표문 1
김영림 | 대외업무담당,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 북한의 신분제도

Ⅰ. 서론

Ⅱ. 북한의 신분제도

Ⅲ. 북한의 신분제도 형태
1. 주민등록 제도
2. 간부 관리통제 제도
3. 신분증 제도

Ⅳ. 신분제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대우

# 새터민의 경험을 통해 본 토대와 성분
# 북한의 신분제도

김영림 | 대외업무담당,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 Ⅰ. 서론

북한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철저한 신분 사회인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 동경이나 환상, 과장된 외피로부터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 Ⅱ. 북한의 신분제도

신분제도는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세습적으로 이어받게 한 제도를 말한다. 신분제도하에서는 지배계급에게는 사회적 특권과 경제적 특혜가 주어지며 피지배계급에게는 사회적 무권리와 물질적 빈궁이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분은 양반과 상민, 귀족과 평민이었다.

양반과 귀족은 사회지배계급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를 독점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상민과 평민은 대부분 사회정치,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서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되었으며, 양민에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 속하였고 천민에는 종, 백정 등이 속하였다.

북한은 1936년 5월5일 발표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제7항"에서 봉건적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함을 공식표명하고 있으나 차후 통치자의 영구 집권과 세습화를 위하여 신분제도를 부활시키고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다.

북한의 신분은 크게 간부계층. 일반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간부계층은 북한사회에서 특권과 특혜를 소유한 지배계급으로 다시 "당 간부. 행정 간부. 군사 간부(장교). 보위 간부. 보안 간부"로 세분화 되며 대부분 세습적이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하급군인 및 안전원. 하급 사무 및 공무원은 일반인에 속한다.

동요계층은 체제반대위험성이 높은 계층으로 부농출신. 소자산가. 부르죠아 성향의 지식인 소상공인. 월남자. 인민군 포로출신. 재외교포. 남조선 출신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사회 진출과 생활에서 세습적인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 특혜에서 배제된다.

북한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천민계층은 적대 계급이다. 적대 계급은 과거와 현재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 친 외세주의자. 정치적 반대파. 종교인. 국군포로. 반공단체가담자 등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사회적으로 분리수거 되여 경리되고 최저 생계만 유지 할 수 있는 조건만 보장 받는다.

## Ⅲ. 북한의 신분제도 형태

첫째. 주민등록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는 북한주민들을 가족단위로 출신성분 및 사회성분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놓고 사회 안전부의 주관 하에 인민 반을 통하여 관리통제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즉 가족단위의 신분을 구분한 제도로서 주민등록 문건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직계가족의 이력. 출신 및 사회성분. 사회적 직위. 전과여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기밀문서로

보관된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원확인문건”이라고 부르며 문건 내용의 여하에 따라 성분(토대)이 좋고 나쁜가가 규정된다.

둘째. 간부 관리통제 제도이다.

간부 관리통제 제도는 기득권 계층에 대한 통일적 장악통제 제도로서 간부 선발. 양성. 임명배치. 승진. 해임. 생활규범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간부로 선발되려면 먼저 삼촌에서 8촌까지 (직위여하와 중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의 성분을 3인-10인 이상의 실명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 신원확인문건) 양호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노동당입당. 군복무. 대학졸업. 충실성. 자질. 검증 등 노동당이 제시한 일정한 기준에도 도달해야 한다. 간부로 선발되면 일정한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임명 후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직위와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고 이력서. 자서전. 가족 및 친척관계. 신원확인문건. 당위원회 평가서가 첨부된 “간부 문건”이 당위원회 간부부에 비치되게 된다. 부모가 간부로 등용되면 세습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셋째. 신분증 제도가 있다.

신분증 제도는 간부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간부로 임명되면 성명. 성별. 출신성분. 사회성분. 직위. 발급기관. 발급일. 신임정도를 기재한 본인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발급되며 언제 어느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 하면 그에 해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북한에서 최고의 신분증은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이름과 사인이 있는 신분증이며, 백두산. 만경대가 그려진 신분증은 경호실과 주석궁의 신분증이고, 노동당마크가 그려진 신분증은 유급 당 간부의 신분증이며, 북한의 국장이 그려진 신분증은 행정 고위간부의 신분증이다. 이외 장교이상의 군인 신분증이 있고 특수 기관 종사자는 2-3개의 신분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 Ⅳ. 신분제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대우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5장 76조에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성분(토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사회 정치적 지위상승. 양호한 고등교육. 상대적 풍요의 경제 및 문화적 혜택. 원하는 배우자 선택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성분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일성과 함께 빨찌산 투쟁을 한 이른바 혁명1세대의 일가친척들은 항일투사 유가족으로 최고의 특권을 보장받으며, 김 부자 연고자. 6.25전쟁참가자. 피살자. 유공자. 남조선혁명가.간부 등 가족들이 그 뒤를 잇는다.

> ※ 참고 : 학교입학. 병원 식당 호텔 등 봉사기관에서의 각종 서비스. 직장배치. 군입대. 노동당입당. 진급. 주거설정. 행사참여. 선물대상. 배급 등에서의 각종특혜 설명

반대로 국군포로. 남조선출신. 월남자. 정치범. 자산계급. 반공단체 가담자를 비롯한 동요 및 적대계층 신분의 가족들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 : 소수이기는 하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특별 신임에 의하여 최하층 신분에서 최상층  신분으로 급상승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남조선출신의 김정일 전처 성혜림. 월북 국군 대대장 표무원 등

발표문 2

김병욱 | 경제업무담당,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

## -사회정치생활·물질생활의 불평등에 의한 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Ⅱ. 북한주민들의 운명개척 3대요인

Ⅲ.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의 축적

Ⅳ. 결론

#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

## -사회정치생활·물질생활의 불평등에 의한 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김병욱 | 경제업무담당,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Ⅰ. 문제제기

○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붕괴를 둘러싼 논쟁 중에는 붉은 자본가[1]혹은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2]에 관한 문제도 주요쟁점으로 되고 있음

○ 사회주의 체제의 운영역사에는 붉은 자본가의 존재와 관련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음

-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붉은 자본가는 레닌이 생존하던 시기에 구소련에서 유래[3]

1) 붉은 자본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자본가와 가깝게 이해되는 개념으로 공산당이 규제한 사적 소유제 하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방법에 의해 자본을 운영하는 개인 혹은 단체 의미

2) 시장기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유재산소유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엘리트와 기술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자본주의를 의미, 질에얄·이반젤레니·엘리노어타운 슬리 지음, 임현진·정일준·정영철 옮김,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서울: 시유시, 2007), 12쪽. 참조

3) 1921년 여름, 아먼드 해머라는 의대 출신 미국 젊은이는 볼셰비키혁명 이후 유럽의 경제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련의 실상을 목격하고는 소련이 가장 필요로 했던 곡물을 미국에서 싣고 와 소련의 광물, 모피, 보석 등과 바꾸는 사업을 시작, 해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레닌의 초청까지 받음, 레닌과의 면담에서 석면 채굴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그는 1920년대 말 모스크바에 소련 최초의 연필공장을 세워 '붉은 자본가'라는 별명을 얻었음 「조선일보」,

- 중국의 개혁개방에서도 붉은 자본가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음[4]

○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북한사회임에도 자체의 자본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물-붉은 자본가가 등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5]

○ 본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도 붉은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정치생활 및 물질생활의 불평등에 의한 자본의 축적[6]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함

○ 북한사회변화 속에 붉은 자본가가 등장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즉 개인 및 특정단체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단위에 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북한에서는 자본의 집중과 관련한 행위보다는 축적과 관련한 행위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7]

○ 한편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평등적인 사회정치생활 및 물질생활 환경을 통해서는 형성되기 어려움

---

2005년 10월 28일.

4) 중국에서 붉은 자본가로 불리는 룽이런 집안은 해마다 발표되는 중국 부호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대상, 룽이런은 덩샤오핑의 지지 하에 1979년 10월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80년대 후반 홍콩 수매 전을 개시하였음, 당시 홍콩에서 투자한 내륙 자본에 의거한 기업이 1천개를 초과하였는데 2/3 이상은 룽이런이 소유한 CITIC를 선두로 한 화룬(華潤)그룹, 간다(光大)실업 등이 점유, 1993년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룽이런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부위원장으로 까지 선발되어 활동, 룽이런은 평생 동안 자본가와 정치가의 역을 동시 수행 http://cafe.naver.com/dosiraktong.cafe

5) 북한의 붉은 자본가세력은 무역업계를 장악한 고위층 자제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전 주중대사 전명수의 아들 전승훈은 “미화 2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부.

6) 본 글에서의 자본의 축적이라 함은 개인의 자금과 국가 혹은 개인생산수단의 사용, 법적보장이 없는 개인 간 계약에 의한 고용노동을 통해 얻는 축적을 의미

7) 북한정권은 일부 주민들 속에서 부의 축적이 자본의 축적으로 선순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소유에 대한 법적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음, 1999년 3월에 개정된 민법 제4장 58조에 의하면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라고 규정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범위도 국가적으로 받은 노동에 의한 분배 몫과 개인부업경리를 통해 얻어진 몫 그리고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같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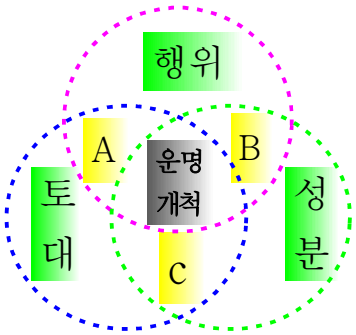
- 자본의 축적 및 집중의 역사는 강압적인 수단들이 동원된 불평등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역사임

○ 북한에서 붉은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려면 자본의 축적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명이 필요

## Ⅱ. 북한주민들의 운명개척 3대요인

○ 토대와 성분 그리고 행위는 북한주민들의 운명개척의 3대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 운명개척의 3대요인




◇ 토대는 혈통 또는 족보와 관련[8]
◇ 성분은 출신성분[9] 및 사회성분[10]과 관련
◇ 행위는 개인적 가용자원이 내외적으로 비쳐지는 모습과 관련[11]

8) 북한표현으로 계급적 토대라 함,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의 과거활동경력이 반영
9) 본인의 출생 시 가정이 처한 사회 계급적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신분을 의미
10) 본인이 사회생활 시 사회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신분으로 간부들 경우 노동당 입당 시 신분과 관계
11) 개인적 가용자원은 체제이념, 실무적 자질, 가족의 가용자원, 공적 및 사적연결망 등으로 구성

○ 3대요인은 상호규제 하면서 주민들의 운명개척에 영향을 줌

- 북한사회는 분단구조 등의 환경으로 다른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연좌제가 강도 높게 작동
- 본인이 사회정치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가족구성원들은 물론 본인과 촌수가 먼 친척의 사상동향에 의해서도 저해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북한주민들의 운명개척에서 3대요인의 개개요인들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간의 위계관계 속에 영향을 줌

<표 1> 3대요인의 영향관계

| 구분 |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 운명개척에 미치는 영향 |
|---|---|---|
| 토대 | 성분과 행위를 규제 | 불변 |
| 성분 | 행위에 영향을 줌 | 반 불변 |
| 행위 | 사회성분 개척에 영향을 줌 | 반 불변 |

○ 북한주민들의 운명개척에서 3대요인의 각 요인들은 주위영역과 연계 하에 운명개척에 영향을 줌

<표 2> 주위영역과의 연계에 의한 효과

※ ◎ 강함, ○ 약함

| 구분 | 운명개척결과 | 김일성시대 | 김정일 시대 | 비고 |
|---|---|---|---|---|
| A(토대+행위)[12] | 핵심권력 영역진출 | ◎ | ◎ | 일부 경우 사회 성분부재[13] |
| B(성분+행위)[14] | 비핵심 권력 영역진출 | ○ | ◎ | 토대부재 |
| C(토대+성분)[15] | 특권층 관리 영역진출 | ◎ | ○ | 행위부재 |

12) 능력이나 노력보다도 토대와 인사상의 혜택에 의해 출세하는 사람들로 '만경대줄기, 백두산줄기, 낙동강줄기 등이 대표적임

13) 토대와 출신성분이 좋다고 해도 사회성분이 '사무원'이나 '학생'이면 간부선발에서 불이익 작용,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김정일은 대학에 들어간 비서국 대상 자녀들을 3년간 군에 복무하고 복학하도록 조치

○ 통치자의 집권 시기에 따라 3대요인 내 각 요인들이 북한주민들의 운명개척에 주는 영향력이 다름

- 김일성 시대에는 3대요인 중 토대가 주는 영향이 컸음, 이런 의미에서 토대중심 일면의 시기라 할 수 있음
- 김정일 시대는 토대나 성분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 볼 수 있음, 실력과 실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주요시 되는 시기로 전환됨

○ 김정일 시대가 출범 첫 시작부터 부딪친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 못한 '화석화된 충신'들만 가지고는 체제운영이 어려운 것과 관련

○ 김정일은 현 시기 진짜배기 충신은 충실성 +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관료선발 및 육성에서 그리고 평가에서 과거와는 다소 차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회활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같은 부문이라고 해도 전공분야와의 접근정도에 따라 선발 및 육성비중에서 과거와 달리하고 있음
  - 정치관료 선발 및 육성에서는 과거와 같이 토대와 성분을, 기술경제 관료선발에서는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내세우고 있음
  - 전반적 행정관료 선발에서 인문계보다 이공계출신 관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Ⅲ.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의 축적

○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정치생활 및 물질생활의 불평등으로 구분

14) 본인 위주의 평가원칙에 따라 등용되는 사례들인데 이 경우 전문분야의 일정직위까지만 간부로 등용됨

15) 부모의 현재 또는 과거 활동경위로 인해 당에서 배려하고 있는 대상임, 대남가족이 이 부류에 속함

○ 주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불평등은 사회정치활동, 물질생활의 불평등은 물질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 1. 사회정치생활의 불평등과 부의 축적

### ⑴ 불평등 관련 양상 및 부의 축적

○ 북한주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불평등은 과거부터 존재, 신분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남
- <표 2>에서와 같이 A나 C계층에는 북한체제운영의 골간으로 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함
- 과거에는 당·군·사법기관을 선호,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과 같은 대외분야 선호

○ 이들 중 일부는 이원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이 양호
- 하나는 국가적 수혜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에서 부여받은 권력의 활용에 따른 부정축재임

○ 반면 B계층은 핵심 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움, 최근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핵심 분야에서도 경제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 이들 중 일부는 자생적인 노력으로 부를 축적

### ⑵ 사회정치생활의 불평등 발생원인

#### ① 주체사상의 운명개척론과 3대요인의 동거

○ 주체사상에서 인간의 운명개척은 정권이 운영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들어가 수령의 영도를 받으면 실현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북한주민들이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며 조직생활을 비롯한 체제의 통제기제

들에 충실히 참가하면 자신의 운명이 개척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논거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구성부분인 일반주민들이 수령에게 충성하면 핵심권력영역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운명개척 3대 요인분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주민들이 수령에게 충실하여도 핵심권력영역에로 접근하기 어려운 선천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 (다만 특정 인물들의 경우 후천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있음)

② 핵심권력영역에로 이동을 제한하는 기제의 작동

○ 정권은 주민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주관적 평가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
- 인간능력의 평가 기준에서 우선순위가 토대에 기반 한 현 정권에 대한 충성심임[16]
- 전 국가적으로 촉수를 뻗치고 있는 노동당소속의 간부과가 주민들의 간부선발자격에 대한 평가를 독점하고 있음

○ 주관적 평가제도 마저도 불균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기술능력평가제도는 있어도[17] 정치 및 행정실무능력에 대한 평가제도가 부재함
- 최근에 도입한 공무원시험제도는 제대로 기능하는데 문제점이 적지 않음[18]

※ 주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불평등은 자본의 축적과 연관이 있는 무형적 공간[19]에 대한 소유의 차이를 발생

16) 김정일은 1974년 8월 2일, 전국 당조직일군 강습회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심은 우리 간부들의 첫째가는 표징입니다.”라고 강조

17) 대학졸업과 함께 부여되는데 보통 6급에서 시작됨, 3년에 1회씩 국가자격심사위원회의 시험을 통해 현 급수유지 또는 상위급수로 올라감

18) 북한은 2004년 11월 23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 자격 판정법』을 채택하였음. 그러나 본 시험제도는 노동당의 인사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과 자격시험 탈락자들에 대한 등용을 목적으로 한 강압, 청탁 등에 대한 처리대책이 명백히 규제되어 있지 않음.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수에 관한 규제 부재

19) 자본의 축적을 위한 무형적 공간에는 정치권력에로의 접근, 엘리트교육의 기회, 핵심권력층과의 연계망 등 주민들의 사경제활동에 지속적이고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속함

## 2. 물질생활의 불평등과 부의 축적

### (1) 불평등 관련 양상 및 부의 축적

○ 7.1경제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개설로 북한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음

○ 당국이 시장 활동을 계획경제의 보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수행자들과 사경제활동 종사자들이 공생하게 되는 환경이 지배

○ 공권력수행자들과 일반주민들 사이에는 물질생활수준에서 불평등이 조성되고 있음

○ 또한 전반적 북한주민들 속에서는 외적으로 공권력과의 연계 그리고 내적으로 경제적 타산능력과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해내는 것, 장사수완을 소유하는 것 등 개인능력의 소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이러한 관심은 일부 경우 부를 축적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표 2에서와 같이 A나 C계층의 일부는 직권과 핵심적 인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20]
- B계층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일찍이 권력과 등지고 시장 활동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으며, 해외친척들과의 연계 하에 시장 활동에 눈을 돌린 사람들이 적지 않음[21]

20)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을 계기로 외화상점들이 생겨나면서 외화바람이 불자 고위층 자제들이 당 간부 자리를 제쳐놓고 무역계에 뛰어들면서 시작됨

21) 이들 중 일부는 그간의 '좀장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북한의 시장완화흐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음

⑵ 물질생활의 불평등 발생원인

①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동거

○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쌀 1키로 경우 국정가격은 44원, 그러나 시장가격은 평균 20배 최고 30배로 거래되고 있음
- 핵심군중은 식의주의 대부분을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은 4대 명절 시 공급되는 기초식품이나 배급을 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시장가격으로 해결[22)]

○ 이런 점에서 국정가격체계는 북한주민들 속에서 핵심군중에 대한 수혜공간, 정권에 대한 충실성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② 전반적 주민생활에서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것

○ 과거에는 주택, 식량배급을 비롯한 기초 소비재의 대부분을 국가가 현물로 공급하였고 농민시장의 운용만을 허용
- 이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에 대한 차단이 제도적으로 가능함

○ 그러나 7.1조치로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도적 차단이 불가능해 짐
- 종합시장의 운영, 사회복지부문의 축소, 성과급수에 따른 생활비 지불 등으로 현물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제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

○ 이에 따라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 청탁 등의 행위들에서는 외화제공이 일

22) 본 논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목적으로 구분하였음, 핵심군중에는 백두산·낙동강줄기, 현 정권의 공로자, 대남관계자 등과 그 가족이, 기본군중에는 과거에 반동단체에 가담한 경력이 없으며 현재의 동향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과 그 가족이, 복잡군중에는 동요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적대분자와 그 가족이 속함.

상행위로 정착되었음

※ 주민들의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은 자본축적과 연관이 있는 유형적 공간[23]에 대한 소유의 차이를 발생

## 3. 자본의 축적양상

○ 일부 북한주민들은 사회정치생활 및 물질생활과정에 축적한 부를 밑천으로 고용노력을 채용해 사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핵심군중은 공권력, 여타군중은 공권력과 결탁 해 합법적 및 불법적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24]

○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확대는 일부 주민들이 이를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기존헌법에는 사회·협동단체가 농기구나 고기배만을 소유, 그러나 개정헌법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소유할 수 있으며 타 용도의 배들도 소유할 수 있게 규정
-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림짐승, 건물에 대한 소유를 삭제함

○ 자본의 축적과 연관된 사례는 일부 사경제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음

23) 자본의 축적을 위한 유형적 공간에는 공식적 직업이나 왁크(무역허가증), 운수기재의 사용 등 사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속함

24) 합법적 방법은 주로 군부나 당기관 산하에 소속되어 얻어진 이득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운영해나가는 방법인데 이 경우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전기사용, 여행증 발급 등에서 유리함, 불법적 방법은 공적기관에 소속한 당, 사법관계자의 비호 하에 운영하는 방법

<표 3> 자본축적과 연관 된 사경제활동의 일부

| 구분 | 사적경제활동 | 합법 | 불법 | 음성적 행위 | |
|---|---|---|---|---|---|
| | | | | 생산수단 | 고용노력 |
| 농업 | 뙈기밭 | ○ | – | – | ○ |
| 상업 | 식당운영 | ○ | – | – | ○ |
| | 상점운영 | ○ | – | ○ | ○ |
| 기타 | 의류가공 | ○ | – | ○ | ○ |
| | 식품가공 | ○ | | ○ | ○ |
| | 수산물 잡이 | ○ | – | ○ | ○ |

**※ 이러한 현상들과 관련해 김정일은 2006년 3월 15일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Ⅳ. 결론

○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정치생활과 물질경제생활의 불평등을 발생하는데 이는 자본의 축적과 연관이 있는 유형적 및 무형적 공간을 소유하는 데서 차이를 가져옴

- 핵심군중은 여타 군중에 비해 유형적 및 무형적 공간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이는 핵심군중이 여타 군중에 비해 상층류생활수준에[25]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 - 일부 복잡군중은 일찍이 시장 환경에 접근하였고 빠른 시장 적응능력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상층류생활수준에 접근해 나가고 있음[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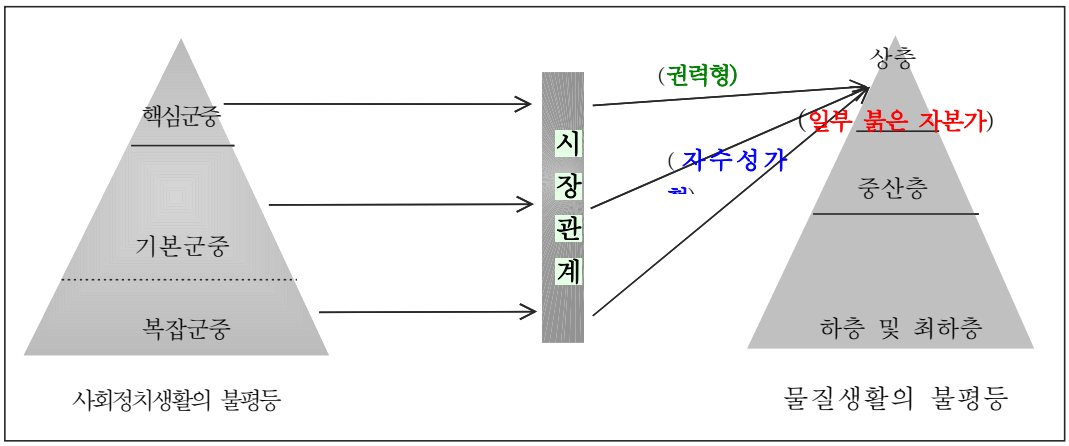
25) 북한주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는 식생활수준, 가정의 외화보유량, 사용하고 있는 5장6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층은 월 3만 원 정도, 중산층은 10만 원 정도, 상층은 100만 원 정도임,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호

26) 복잡군중들 속에서 해외에 있는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상층류생활수준에 접근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연고가 없이 순수한 노력으로 접근한 실례는 알려지지 않음

○ 오늘 북한사회는 과거부터 존재한 사회정치생활의 불평등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한 물질생활의 불평등이 밀착하여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는 붉은 자본가의 등장을 가능하게 함

- 북한사회 환경에서 붉은 자본가는 음성적으로 핵심군중 뿐 아니라 여타 군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크게 두 가지 부류에서 등장할 조건이 있는데 권력 행사형과 권력 밀착형(자수성가)형임

<그림 2> 붉은 자본가의 등장




○ 사회정치생활의 불평등과 물질생활의 불평등 사이의 위계관계를 보면 전자는 후자를 지배하고 있음

- 물질생활수준에서 상층에 속하는 일부 기본 및 복잡군중은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사경제활동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 신분향상을 노리고 있음

○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가 음성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체제의 운영구조로 부터 산생하는 것으로 정권으로서는 이를 차단할 가능성이 적은데 주목 할 필요 있음

## 참고자료


- 질에얄·이반젤레나·엘리노어타운 슬리 지음, 임현진·정일준·정영철 옮김.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서울: 시유시, 2007).
- 「조선일보」. 2005년 10월 28일.
-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메모

메모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